



3면

"익산 선거구획정안 전면 폐기하라"

전주매일

2026년 4월 28일 화요일 (음 3월 12일) 제396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이원택, '내발적 발전위' 신설 공식화

(민주 전북자치도지사 후보)

전북경제 대전환 핵심공약
도지사 직속 실행기구로
패스트트랙 시스템 구축
"전북 안서 성장하는 구조
조성... 체감경제 실현"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전북도지사에 출마한 이원택 후보가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위한 핵심 공약으로 '내발적 발전위원회' 신설을 공식화했다. 이 후보는 "전북 경제는 더 이상 외부 의존형 유지 중심 전략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전북이 가진 기업·인재·자원·문화·기술을 서로 연결해 내부에서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하는 '내발적 발전'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제시한 내발적 발전위원회는 단순 자문기구가 아닌 도지사 직속의 실질적 권한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존 관료주의적 행정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위헌화를 도정 최고 수준의 실행기구로 격상해 정책 결정과 집행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의회와 협력해 '전북 젊은 기업가 육성 조례(가칭)'를 제정하고 위원회 결정 사항이 각 부서로 즉각 이행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기업 현장의 가장 큰 장애물로 낡은 규제와 느린 행정"을 지적했다. 그는 "월 1회 도지사 주재 및 착간담회를 통해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건의된 규제 사항은 48시간 내에 검토·답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이 기업의 발목을 잡는 구조를 끝내고 기업 활동을 돕는 지원 플랫폼으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전북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전북형 벤처캐피탈 및 투자 재원을 조성하고,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2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경제의 구조적 전환 위한 핵심 공약으로 '내발적 발전위원회' 신설을 공식화했다.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스타트업의 시드 단계부터 스케일업 IPO 상장 단계까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리하고, 기업별 전담 인력을 배치해 행정 부담을 줄여준다"며 "단순 지원이 아니라 성장 궤적을 끝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내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전북 기업 간 원자재 구매 및 서비스 이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 내 공급망을 강화하고 경제 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기업·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업을 촉진하는 오픈노베이션 사업을 확대하고, 분기별 비즈니스 매칭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실패 경험까지 공유되는 수평적 기업 문화가 정착돼야 진짜 혁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내발적 발전 전략이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전북의 경쟁력은 기업뿐

아니라 농업 관광, 문화자산, 소상공인, 전통기술 등 다양한 영역에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 사례로 정음의 조경수 산업을 언급하며 "정음에는 1,800여 농가가 조경수를 생산하는 역사 깊은 산업 기반이 있다"며 "조경수 축제, 유통구조 개선 공정 거래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익산 황등 석재단지에 대해서도 "기존 산업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공간과 산업으로 재편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지역 자산을 재해석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현행 전북도 조직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대대적인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전북 내 모든 기업과 자산을 전수 조사해 성장 단계별(A·B·C·D 등급)로 분석하고 맞춤형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현재 조직으로는 미래 산업과 기존 산업을 동시에 육성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 농

업, 문화자산까지 포함한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경선 이후 당내 갈등 봉합과 관련해 이 후보는 "경선 절차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향후 도당과 협력해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이 공동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당의 결정은 존중하며, 민주당 승리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내발적 발전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전북 경제의 가장 절박한 생존 전략"이라며 "도민의 소득과 일자리로 이어지는 체감형 경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하기 좋은 전북, 청년이 돌아오는 전북을 만들겠다"며 "더 크고 당당한 전북을 위해 도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오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첫 날 도, 차질 없는 집행 개시

온·오프라인 2만7844명 접수... 도민 불편 최소화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생활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첫 날부터 차질 없는 집행 체계를 가동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온라인 6,244건, 오프라인 2만1,600건 등 총 2만7,844건에 대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접수해 164억원에 대한 지급을 완료했다. 종류별로는 지역사랑상품권 1,353건, 신용·체크카드 5,275건, 선불카드 2만1,216건에 해당한다.

신청 초기 혼잡이 우려됐으나 전용 어플로 신청하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라인 또는 은행 창구에서 진행하는 신용·체크카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선불카드 등 신청 방식이 구분되면서 혼잡은 없었다.

앞서 도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 유가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도민들이 지원금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해 사전 준비, 현장 대응 민원 안내 체계를 점검해 왔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기존 행정인력 외 현장 보조 대응 인력 581명을 투입했다. 온라인(SNS·카카오톡 채널)과

오프라인(LED 전광판) 홍보를 병행하며, 스미싱 피해 예방 안내도 함께 진행했다.

특히 도·시군 자체 콜센터를 운영해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 이의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지원도 병행해 누구나 소의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1~2차로 나눠 진행되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는 1차 지급은 이날부터 오는 5월 8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첫 주는 초기 창구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4월 27일은 끝자리 1·6, 28일은 2·7, 29일은 3·8, 30일은 4·9·5·0 순이며, 5월 1일 노동절에는 온라인 신청은 가능하나 지류나 선불카드 등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해 해당 대상자는 30일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지역은 주소지 시군이며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고, 유흥·사행업종에서의 사용은 제외된다.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오만호 기자

'당신의 소리축제를 꺼내주세요'

축제 조직위, 내달 26일까지 '나의 소리축제' 공모전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위원장 최철)는 2026년 축제 25주년을 기념해 5월 26일까지 사진공모전 '나의 소리축제'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25년간 축제를 찾았던 관람객들의 추억을 되살리고, 그 발자취를 함께 기록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2001년부터 2016년 사이 축제 현장에서 활영된 사진을 대상으로, 개인이 간직해온 기억을 공유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공모 주제에는 제한이 없다. 공연의 감동, 현장의 열기, 가족·연인·자인과 함께한 순간 등 소리

축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라면 어떤 사진이든 응모 가능하다. 장롱 속에 보관된 인화사진은 물론, 오래된 휴대전화나 디지털카메라에 남아 있는 이미지 한 장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축제를 경험한 관람객들이 자신의 기억을 다시 꺼내며, 사진을 통해 서로 다른 세대의 감성과 이야기를 나누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소리축제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만호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